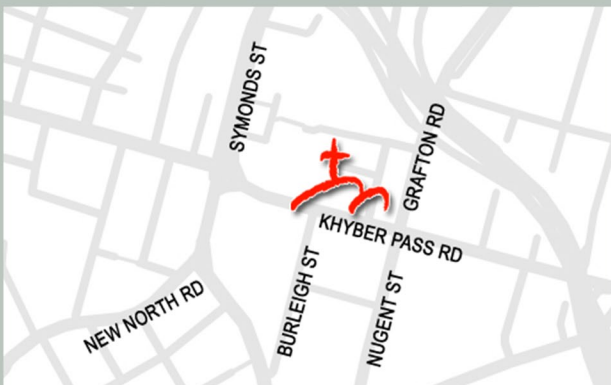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부 예배 후 10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3시 10분, 사무실).
2.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를 헤아려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살피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이태한 목사는 바누아투 삼마 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헌당예배/ 오는 30일 (수)
출발/ 월요일 도착/ 목요일
참석자/ 김다은, 박후임, 이광희
5. 밀알 장애우를 섬기는 일일 카페에 수고한 네팔 공동체 식구들과 여러모로 동참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신앙인의 호흡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 사역 일지]

- 8일(금): 저녁 기도회
- 10일(주일): 전도주일
- 23일(토): 새가족 환영회
- 27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통가)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0/27
21권 43호
감사주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36:1-2		인도자
■ 찬송	28장	-----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273장	-----	다같이
대표기도	-----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에베소서 5:20-21		인도자
찬양대찬양	감사찬송	-----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감사찾아가기		이태한 목사
찬송	날 구원하신 예수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김선화 집사	금주기도	김규연 형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10	다음주일	채다운 자매
설교	[그런즉 우리는]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성철 목사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주기도	다같이		

[11월 기도 순서]

- 11월 3일 (주일) / 박덕철 장로
- 11월 6일 (수) / 김영옥 권사
- 11월 10일 (주일) / 박병민 장로
- 11월 13일 (수) / 김자경 권사

[11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이병대, 이애란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님들께

보내주신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한 달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누구는 선교를 즐기면서 해야 한다는데, 아직 저희는 멀었는가 봅니다.

좌절, 낙심했다가도 또 마음을 추스르며 달려가게 됩니다. 저 역시 연약한 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란 특성상 모든 여건이 수월치 않은 곳에서 힘들게 작업한 보고서가 그저 주마간산 격으로 아니면 아예 첨부파일은 열어 보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며 선교사 역시 실망이 클 것입니다. 가끔 수신 거부로 반송되는 메일이 더러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는 되도록 빠곡하게 글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그렇게 꼼꼼히 읽어 보겠나 싶어 그렇습니다. 그림 속에 테마와 스토리가 있고 현장 선교사가 들려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고뇌와 삶의 애환 그리고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별도로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만 해서가 아니라 선교 초기부터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20년이 다가오는데... 어찌다가 무엇을 요청했다가 여지없이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구나!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음 변함없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저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후원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상급을 돌려 드리기로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빛진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제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시초부터 보내주신 기도와 후원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드립니다.

기도 제목

- 1) 선교사의 건강 및 안전과 영적 충만, 초심을 잃지 않도록
- 2) 전교인 영적 예배의 회복으로 기도, 자립, 말씀,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1.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2. 주의 종들과 향존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도와 교회를 섬기도록.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감사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네 번째 선교지를 다녀와서 9월 5일 안성 수양관에서 열린 시니어 선교한국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으로 3개국 선교 탐방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미안마 양곤/ 김중곤, 최진자 선교사: 최초 미안마 한인 선교사,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헌신하시는 현장이었다. 공산 국가이며, 불교 국가로 방문객들은 반드시 호텔에 만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 부부는 선교사님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 또한 선교사님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 두 분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학교를 통해 현지 사역자를 배출하여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설립하여 버려진 60명 원생들을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있었다. 기저귀 찬 아기부터 18세 청소년까지, 공산국가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세심하게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영재 학교를 설립하여 신앙과 교육으로 미안마를 깨우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장성규 선교사(장 클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마치고, 받은 재능인 음악을 통해 하노이에서 선교하는 분이다. 앞을 볼 수 없는 미혼 남성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씩씩하고 담대하며, 취미가 여행인 이 분은 숙소에서 피아노, 드럼, 기타, 클라리넷을 가르치며 음악을 접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환경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꿈과 희망을 주고, 동남아에 음악 영재학교를 세우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필리핀/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 금년이 4번째 방문인 푸게가라오에 신학교 개원에 맞추어 도착하였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현지 교인들, 신학생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개원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과 예배를 위해 타 지역으로 차와 배를 타고, 말도 타며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사 두 분, 현지 통역 두 분, 6명이 함께 전도를 나갔었다. 차로 2시간, 걸어 한 시간 논과 빨을 지나 불멸의 한낮에 도착한 곳은 옛날 우리의 원두막보다 못한, 풀로 얼기 설기 울린 지붕에 대나무로 영성하게 이은 움막 10채 정도 있는 마을이었다. 한 집에 10명 정도의 가족들이 생활한다는 데 불에 그슬린 항고 두어 개가 유일한 식사 도구로 처마에 매달려 있을 뿐 물도, 쌀도, 입을 것도 없는 걸레와 닦음없는 이불 두 여장이 전부였다. 복음을 전하며, 듣고 있는 그들을 뒤에서 보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하였다.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알려주는 이 없는 무지몽매한 암흑의 시대에 서양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과 교육의 기회가 나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그 빛을 지금 갖고 있구나 싶었다. 푸게가라오 본 교회 성도들도 복음이 전해지던 40여 년 전에는 몽둥이와 허리에 찬 칼을 휘두르며 여성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니 감사감격할 뿐이다. 복음이 어떻게, 왜 전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다. 이를 통해 신앙의 배부름으로 인해 나타내지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삶의 답이며 이유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바누아투 공동체 이규임 권사 (더 자세한 것은 사진과 함께 교회 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